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 및 방위사업청 이전 건의**

**2022. 4**

- 건의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 및 방위사업청 이전 건의

## I. 현황

- 정부의 지속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역량과 성장잠재력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줄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30대 수도권 인구 비중(2011년 52.5% ⇒ 2021년 55.0%)

### 전국 광역지자체별 GR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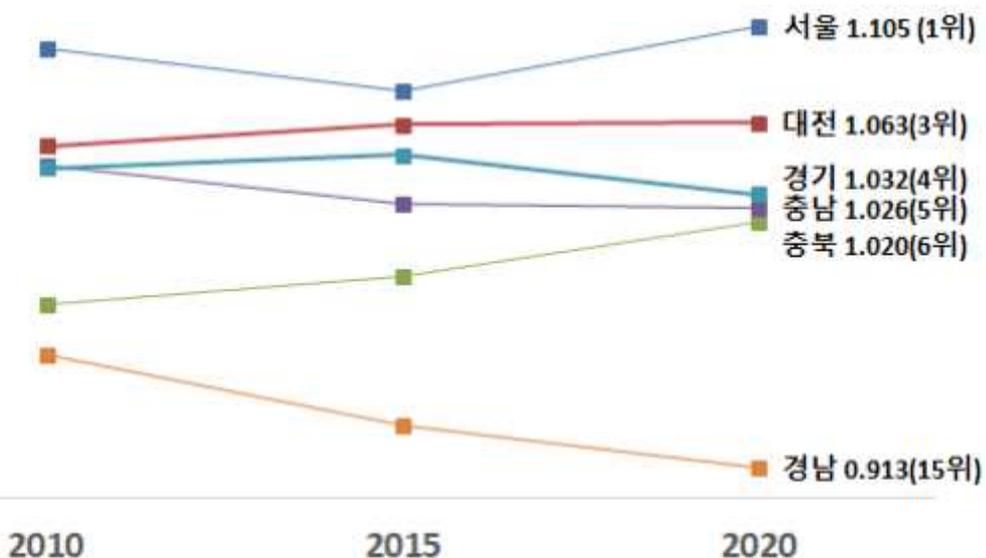
(단위 : 천억원)

광역 지자체	2020년		2010년 대비 비중 증감	광역 지자체	2020년		2010년 대비 비중 증감
	실질 GRDP	비중			실질 GRDP	비중	
서울	4,137	23.3%	-0.8%p	강원	451	2.5%	0.0%p
부산	865	5.0%	-0.3%p	충북	678	3.0%	0.7%p
대구	540	3.1%	-0.1%p	충남	1,118	6.4%	-0.3%p
인천	854	4.8%	-0.2%p	전북	496	2.9%	-0.2%p
광주	392	2.1%	0.0%p	전남	745	4.7%	-0.7%p
대전	411	2.3%	-0.1%p	경북	1,014	6.4%	-0.9%p
울산	668	4.6%	-1.0%p	경남	1,049	6.9%	-1.2%p
세종	117	0.6%	0.6%p	제주	179	0.9%	0.1%p
경기	4,673	21.0%	4.4%p	합계	18,389	100.0%	

※자료 : 통계청

- 무엇보다 그동안 국가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경남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10년간(2010년~2020년) GDP 대비 경남 GRDP 비중이 8.1%에서 6.9%로 1.2%p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음.
- 향후 지역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도 서울시와 대전시, 경기도가 1~4위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 인근의 광역지자체인 충남과 충북이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했음. 특히 2020년에는 정부기관이 밀집한 세종시가 2위로 부상했음.
- 반면 경남은 2010년 9위, 2015년 11위로 계속해서 성장잠재력 순위가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음.
- 이는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행정 등 도시 중추기능의 장점으로 고급인력과 정보가 모이고 다양한 산업 간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도록 하는 도시경쟁력이 지역 산업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산업연구원)

광역지자체별 지역성장잠재력 종합지수 추이



※ 자료 : 지역성장잠재력 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2022.4

-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 강점이 있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
- 경남은 오랜기간 기계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임. 특히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지역 특화산업으로서 관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임.
  - \* 방위산업 :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전국 85개중 경남 28개(창원 17개)  
매출액 : 4.2조(전국의 27.3%), 수출액 : 0.6조(전국의 33.5%)
  - \* 항공산업 :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체계기업과 50여개 부품기업 소재  
생산액 : 3.9조(전국의 68%)
- 더불어 관련 연구기반시설을 비롯해 관련 핵심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어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기존 경남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됨.
  - \* 방위산업 :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창원), 국방벤처센터, 재료연구원 등
  - \* 항공산업 : 미국 Boeing, LM, 유럽 Airbus 등 항공우주 체계종합 통합수행
- 이러한 환경과 기반 위에 지식서비스, 연구개발, 행정 등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방위사업청과 항공우주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지역으로 이전 또는 설립된다면,
- 경남의 특화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기계·전기전자·금속가공 등 지역 내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사료됨.

## II. 건의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경남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지역에 항공우주청 설립 및 방위사업청 이전을 건의드립니다.

2022년 4월 24일

### 경상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구 자 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 자 천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금 대 호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박 명 진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손 영 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조 용 국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환 중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 상 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정 기 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계 출